

신분갈등 설화의 공간구성과 주제

신 동 훈*

1. 서 론

어느 문학양식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설화에 있어서 작중공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작중인물의 행위는 특정한 공간 위에 놓임으로 해서 形象으로서의 구체성을 확보하게 되며, 그 구체성을 바탕으로 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설화에 있어서 작중공간은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행위의 배경으로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작품의 궁극적인 표현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설화 연구에 있어 공간의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인 연구작업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¹⁾ 특히 그 연구작업들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 어느 한 방향으로의 편향성을 나타내고 있음이 주목되는바, 그것은 공간에 대한 관심이 일상현실의 생활공간과는 다른 이질적인 공간으로서 제시되는 특수한 別世界에 대하여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진다. 조희웅의 논문에 있어 주로 천상계, 지하계, 신선계, 용궁계 등의 공간이 지니는

* 박사과정

- 1)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공간' 문제에 대하여 주된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조희웅, 「한국 서사문학의 공간관념」, 고전문학연구 1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71.
황패강, 「한국 고대서사문학의 역동적 motive에 관한 시고」, 고전문학연구 1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71.
이수자, 「한국 설화문학의 공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성격에 대하여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황폐강의 논문에 있어서는 일상적 공간과는 성격이 다른 신성공간으로서의 밀폐된 내부공간의 존재방식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수자의 장편의 논문에 있어서도 조희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천상계, 이상향, 지하계, 수중계, 저승계 등과 같은 별세계에 대한 관심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현실공간에 대해서는 산, 골, 집 등에 대한 단편적인 논의가 전개되었을 뿐이다. 최근의 이지영의 연구작업²⁾에 있어서는 논의가 좀더 집중화되어 천상계와 지상계의 대립 양상에 관한 고찰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밖에도 여러 논문에서 부분적으로 제시된 공간에 대한 관심 역시 대부분이 이상의 여러 작업에서의 시각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 속에서, 일상적인 현실공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설화에 있어서 그 공간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인 연구작업은 거의 수행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조동일의 연구성과가 예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인 사례가 되고 있을 뿐이다. 그는 설화에 대한 다각적인 이론적 탐색의 일환으로서 인물전설에 있어서의 여러 사회적 공간이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고찰한 바 있는데,³⁾ 이 방면의 연구에 있어 선구적인 업적이라 할 만하다. 이밖에도 설화, 특히 야담을 대상으로 해서 작품배경으로서의 현실의 제약상에 대하여 고찰하는 방식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작중공간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미학적 관심과는 다소 편차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공간, 시간은 물론 인물이 다 함께 포괄된 '현실'의 차원에 그 문제의식이 놓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현실성, 일상성을 특징으로 하는 설화에 있어서의 작중공간의 위상을 살펴보기 위한 작업에 해당한다. 일상적인 생활공간이 이야기공간으로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일상의 생활공간, 특히 사회적 생활공간에 있어서 중요한 대립적 축은 무엇이고 그것이 작중에서 어떻게 엮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 등이 이 논문에서 관심을 기울일 문제점들이다. 앞서 조희웅이나 이수자는 작중공간 분석을

2) 이지영, 「한국 결혼시련담연구—〈나뭇꾼과 선녀〉와 〈우렁새시〉형 민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3)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pp. 409-421.

통하여 우리 민족의 공간관념을 추출해내겠다는 관점을 제시한 바 있으나,⁴⁾ 이 논문에서는 공간의 위상을 작품의 문학적 존재방식의 문제 탐색의 일환으로서 다루려 하며, 특히 작품 주제와의 연관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려 한다.

필자는 이 작업에 앞서, 신분갈등을 주제로 하는 설화유형 중에서 ① 구비설화, ② 광포설화, ③ 현실적, 일상적인 성격을 갖는 설화, ④ 문학적 성이 높은 설화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등제한 상사람」 「백정과 박문수」 「피쟁이 하인」 「정승 골린 사람」 등으로 명명되는 네 설화유형의 전승양상을 정리하고 그 작중상황 설정 및 문제해결 방식에 관하여 살펴본 바 있는데,⁵⁾ 이 논문에서도 이들 네 설화유형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필자는 이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여 구비설화, 특히 사회적 갈등을 주제로 하고 있는 구비설화에 내재되어 있는 몇 가지 미학적 문제를 검토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는바 이 논문은 그 두번째 작업에 해당하는 셈이다.

2. 이야기공간으로서의 생활공간

이야기를 통한 세계인식이 갖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서 우리는 그 '대상성'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실에서의 실제적인 생활경험을 통한 인식이란 스스로가 경험의 당사자인 만큼 개인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주관성을 띠게 마련이며, 스스로 사태 '속에' 놓여 있음으로 해서 전체의 의미를 바로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이야기의 세계는 현실과 닮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의 문제 '실제의' 문제라는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완결되고 있음으로 해서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전승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대상화된 세계를 음미하고 향유하는 가운데 또한 현실 세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야기를 통한 인식이

4) 조희용, 앞의 논문, p.97; 이수자, 앞의 논문, p.3.

5) 신동훈, 「신분갈등 설화의 상황설정과 문제해결 방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라 할 수 있는 것이다.⁶⁾

설화라는 문학양식에 있어서 대상성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관습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가 흔히 설화를 ‘옛날이야기’라고 지칭하는 데서 나타나듯이 설화의 작중상황은 ‘지난날’의 상황으로서 제시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라는 사실에 의해 실제현실과의 거리가 마련되며, 또한 이미 종결된 상황으로서 음미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설화는 ‘나’ 아닌 ‘남’의 이야기로서 제시된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⁷⁾ 이 역시 전승자들이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작중상황과 대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대상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서술자가 문자 뒤에 숨어 있는 기록 서사물과는 달리 구비설화에 있어서 화자와 청자의 직접적 대면을 통해 이야기의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점 역시 대상성과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다. 기록물에 있어 작가와 독자의 만남이 상대적으로 간접적이고 독자와 작중상황의 대면이 일차적이라 할 수 있는 데 비해, 설화에 있어서는 화자와 청자의 상호관계가 직접적이고 일차적임으로 해서 작중상황은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향유대상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설화의 작중상황이 이러한 여러 관습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현실의 상황과 변별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작중상황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작중공간이 실제현실의 공간과 변별될 것임은 쉽사리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설화에 있어 그 공간만을 따로 떼어놓고 볼 때, 작중공간이 실제 현실공간과 차별화되도록 하는 일반적인 미학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그리 간단치 않다. 설화 속의 공간이 실제현실과 명백히 다른 별세계로 설정되는 것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전승자들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 즉 같은 마을, 같은 사회, 혹은 같은 세상이 작중공간으로 설정되는 경우 또한 많은 것이다.⁸⁾

6) R.D. Abrahams, "Introductory Remarks to a Rhetorical Theory of Folklor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 81, No. 320, American Folklore Society, 1968, pp.148-149 참조.

7) 이야기 중에서는 ‘나’를 등장인물로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개인 경험담’의 영역에 드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설화의 영역에 포함되기 어렵다. 현대소설에 있어 ‘나’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작중공간을 놓고 볼 때 그 대상화의 양상이 매우 이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설화에 있어 그 작중공간이 실제현실의 공간으로부터 뚜렷하게 변별되는 경우를 우리는 초월계(혹은 초현실계)가 설정된 이야기들로부터 찾을 수 있다. 즉 이수자가 논했던 바 천상계, 이상향, 지하계, 수중계, 저승계 등과 같은 작중공간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공간은 인간이 실제의 현실에서 경험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상상을 바탕으로 하여 설정한 별세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별세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야기 전승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발붙이고 있는 현실세계에서 벗어나 상상의 공간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즉 작중세계가 꾸며낸 세계로서의 대상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별세계가 설정되는 경우 그것은 설화의 작중상황에 대상성을 부여함에 있어 다른 어느 요소 이상으로 강력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설화에 있어 초월계가 설정된다 해도 그것만으로 작중공간이 짜여지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상대되는 공간으로서 인간의 보통의 삶의 공간이 병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야기가 구현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 두 공간 즉 초월계와 현실계가 만나는 방식⁹⁾에 의해 구체화되게 된다.¹⁰⁾ 그런 면에서 이 경우 작중공간의 위상은 이원성, 혹은 이중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설화에 있어서의 작중공간의 위상은 그 이원적, 이중적 구조가 구체화되고 있는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명징하게 밝혀지게 된다 하겠다.

이상에서 우리는 일상적 현실공간과 속성을 달리하는 초월적 공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작중상황 내에서 공간의 문제가 갖는 의미가 매우

8) 지역전설은 작중공간이 전승자들이 살고 있는 현실공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9) 물론 그 만남의 방식에는 다양한 편차가 있을 수 있다. 그 예로 초월공간이 현실공간처럼 실재하는 것으로 그려지거나, 아니면 현실공간과는 달리 가상으로 설정된 문학적 장치로 나타나는가 하는 차이를 들 수 있다. 이는 지면을 달리해서 논해야 할 복잡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더이상의 언급은 보류하기로 한다.

10) 이야기 속에 현실계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초월공간의 의미는 실제현실과의 관련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점에서 현실계가 드러나는 경우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큰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역시 대체로 쉽게 찾아지는 것임을 또한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기존의 연구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집중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문제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설화에는 초월계와 같은 별세계가 문제시되지 않는 작품들이 나란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 작품들에 있어 작중공간의 의미가 앞의 경우에서와 같이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의식을 예각화해서 접근할 때 그 속에 많은 논점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됨으로 해서, 설화에 있어서의 작중공간의 위상이 포괄적으로 자리매겨질 수 있음을 생각할 때, 그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진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논의대상으로 삼고 있는 네 유형의 설화는 모두 위와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그 중에서 「등제한 상사람」 「피쟁이 하인」 두 자료를 놓고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등제한 상사람」은 ‘내륙형’과 ‘제주형’에 있어 약간의 내용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를 아울러서 그 서사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¹⁾

- 가. 주인공은 돈많은 백정(어부: ‘제주형’)의 똑똑한 아들이다.
- 나. 가난한 서당선생을 잘 봉양한 후 글을 배운다.
- 다. 서울로 은밀히 과거를 보러 떠난다.
- 라. 양반집 도령들이 주인공을 괴롭힌다.(‘제주형’)
- 마. 주인공은 서울에서 우연히 정승딸을 만나 과거글을 얻는다(‘제주형’)
- 바. 주인공은 신분을 감추고 과거를 치러 장원급제를 한다.
- 사. 정승이 주인공을 데려다 사위로 삼는다.
- 아. 시골에서 아버지가 주인공을 찾아 올라온다.
- 자. 주인공 부부가 아버지에게 은밀히 양반행동을 가르친다.
- 차. 아버지의 실수로 미친한 신분이 탄로나 쫓겨난다.
- 카. 어느 부자와의 내기에 이겨서 큰 재물을 얻는다.
- 타. 정승에게 전날 아버지의 실수가 오해였음을 납득시킨다.
- 파. 주인공은 출세해서 양반으로 잘 산다.

11) 신동훈, 앞의 논문, pp.9~17.

이 설화에 있어 논의대상이 된 9편의 각편에서 주인공이 태어나 살아 온 고장은 평범한 향촌으로 되어 있다(특히, '제주형'에 있어서는 평범한 어촌이다). 대체로 '어느 고을' '어느 동네' 등과 같이 간략히 제시된 경우가 많은데, 자료에 따라서는 '정읍' '안동' 등과 같이 지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한편 이 설화에서는 이 향촌 마을과 함께 '서울'이라는 공간이 등장한다. 주인공은 서울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평범한 향촌과 서울, 그리고 그 사이의 여로 등이 이 설화의 주된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공간이 실제현실의 공간을 특별한 굴절 없이 반영한 것임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이 설화에 있어 제시되는 공간은 일상의 생업과 사회적 활동이 수행되는 평범한 생활공간인 것이다.

「피쟁이 하인」의 서사단락은 몇몇 단편적인 변이형들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짜여져 있다.¹²⁾

- 가. 주인공은 시골 양반집의 하인이다.
- 나. 주인공이 상전과 함께 서울로 길을 떠난다.
- 다. 주인공이 피로 상전의 음식을 뺏어먹는다.
- 라. 주인공이 상전의 말을 팔아 먹는다.
- 마. 상전이 주인공을 죽이라고 글을 써서 집으로 돌려보낸다.
- 바. 방아찡는 곳에서 피로 떡보리를 훔쳐 내뺐다.
- 사. 피로 꿀장수에게서 꿀을 떼먹는다.
- 아. 주인공은 상전이 쓴 글내용을 고쳐 주인딸과 결혼한다.
- 자. 상전이 주인공을 죽이려고 띄워서 자루에 넣어 놓는다.
- 차. 주인공이 다른 사람과 바꿔치기해서 살아난다.
- 카. 주인공이 상전의 식구들을 물에 뛰어들여 죽게 한다.
- 타. 주인공이 주인딸을 데리고 잘 산다.

「피쟁이 하인」은 채록된 각편이 30편이 넘어 수가 많은 편인데, 이야기 주인공인 하인이 살고 있는 공간은 대체로 '어느 한 시골' 등으로 추상적으로 제시된 경우가 많으며, 간혹 피산, 경남, 충주, 당진 신평, 순천, 언양, 황해도 등으로 구체화된 경우도 눈에 띈다. 이 역시 전형적인 향촌이라고 묶어 말할 수 있다. 한편 이 설화에 있어서도 「등제한 상

12) 같은 논문, pp.25~35.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울’이라는 공간이 제시되며, 향촌과 서울을 왕래하는 여로가 중요한 공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설화에 제시되고 있는 이러한 공간 역시 양반이 과거를 보러 가고 하인이 뒤를 따르는, 여인이 떡방아를 찧고 꿀장수, 유기장수가 돌아다니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의 공간으로서 구체화되고 있다. 주인공이 물속에 있는 용궁을 다녀왔다고 하여 상전을 속이는 내용이 나오긴 하나, 여기서 용궁은 거짓말로 꾸며낸 공간인 만큼 별다른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이 두 설화유형에 있어서 일상적인 현실공간과 변별되는 특수한 별세계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의 사회적 생활의 공간만이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월계가 설정된 설화에서의 공간구성이 이원적인 데 비해, 이 설화들의 작중공간은 현실적 일원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터이다. 작중공간이 현실의 공간과 동질적인 차원에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 설화들에 있어 작중공간은 초월계가 설정된 설화에 있어서와는 달리 작중상황에 대상성을 부여함에 있어 그 자체로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설화들에 있어 작중공간은 현실공간과의 유사성으로 하여 작중상황을 현실상황을 향해 열리도록, 연속되도록 하는 역할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월계가 설정된 설화가 기본적으로 ‘현실 너머’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일상적 성격의 설화는 ‘현실 자체’에 대한 관심을 출발점으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비교할 만하다.¹³⁾ 설화에 있어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이질적인 성격은 이야기의 존재방식에 있어 본질에 닿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설화갈래론을 펼침에 있어 ‘초월성’의 문제를 중요한 축으로 삼았던 것¹⁴⁾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13) 작품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의미가 어디로 귀착되는가 하는 것은 공간의 또 다른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만큼, 이러한 대비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14) 이상일, 「설화장르론」, 김열규 외, 『민담학개론』, 일조각, 1982.
장진길, 「한국 설화문학에 있어 장르들의 본질구경과 관계설정」, 논문집, 20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2.

임재해, 「설화의 존재양식과 갈래체계」, 구비문학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85.

그러나 이 논문들에 있어 구체적으로 문제가 다루어진 방식에는 여러 문

우리는 앞서 초월계가 설정되는 설화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그 상대 개념으로서 현실계가 등장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이때의 현실계가 지니는 의미와, 앞서의 두 설화유형과 같이 현실적 일원성을 특징으로 하는 설화에 있어서의 현실계가 지니는 성격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이 지적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현실계의 의미는 초월계와의 관계를 통하여 규정되는 것인 만큼 흔히 ‘현실 너머의 세계’에 대한 ‘현실세계’ 혹은 ‘인간세계’로서 보편적인 의미에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후자의 경우에는 현실세계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 만큼 작중공간은 현실의 ‘특정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된다. 즉 전자에서 ‘인간’ 그 자체가 문제가 제기되고 바로 그 인간의 공간으로서 현실이 문제시된다면, 후자에 있어서는 백정, 하인, 양반, 정승 등과 같은 구체적인 인간과 그들의 삶의 공간으로서의 향촌, 서울 등과 같은 특정한 공간이 문제시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¹⁵⁾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현실적 일원성을 지니는 설화 내에서의 양식상의 변별이 공간의 위상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필자는 앞서 소개한 논문에서 이미 네 개의 설화유형이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개의 변별적인 양식으로 나뉘어지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즉 「등제한 상사담」 「백정과 박문수」는 ‘참말형 설화’로 보았는바 이는 전승자들이 이야기 내용의 事實性 여부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상황 표현의 방식에 있어 寫實性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피쟁이 하인」 「정승 골린 사람」에 대해서는 ‘허풍형 설화’라 하였는데, 이야기 내용의 事實性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흥미 중심의 과장적 표현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⁶⁾ 그런데, 단적으로 말하여 이와 같은 상황설정 방식상의 차이가 작중공간 자

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시각이다.

15) 이러한 논의는 사태를 간략하게 일반화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설화의 여러 요소들이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편차가 가능한 것이 실제상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단지 기본적인 성격의 차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뿐이며, 보충 논의의 필요로 하고 있다.

16) 신동훈, 앞의 논문, pp.45~76.

체의 이질성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앞서 「등제한 상사람」과 「피쟁이 하인」의 작중공간에 대하여 설명한 바를 상기할 경우 쉽게 이해된다. 즉 두 작품에 있어 향촌, 서울, 그리고 둘을 사이에 둔 여로 등의 공간이 공통적으로 주요 공간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이 특별한 변형 없이 일상 사회생활의 공간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징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두 설화의 경우 기본적으로 그 공간이 이질성보다 동질성을 강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실적 일원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설화 내에서의 양식상의 변별에 있어 작중공간이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며, 오히려 형상화의 공통적 기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⁷⁾ 전승자의 태도 및 표현방식의 차이가 변별의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초월계’의 문제가 설화의 양식적 변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하겠다.¹⁸⁾

3. ‘향촌’ 과 ‘서울’ 의 위상

우리는 앞 절에서 다분히 추상적인 일반론을 전개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논의를 대부분 보류한 바 있다. 이 절에서는 본고에서 논의대상으로 삼고 있는 네 가지 설화유형에 있어 공간구성의 기본 축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작품 주제의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설화에 있어서 공간상의 대립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곳:저곳’의 대립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본다. ‘이곳’이란 설화의 전승자들이 실제로 발붙이고 살고 있는 공간이며, ‘저곳’은 그와 반대로 전승자들의 삶의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을 지칭한다. 그 대립은 ‘이 마을:저 마을’, ‘이 지방:저 지방’, ‘이 나라:저 나라’ 등과 같이 여러 차원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17) 사정이 이러한 만큼 차후의 논의에 있어 공간구성의 문제를 ‘참말형:허풍형’의 변별과 연관짓지 않으려 한다.

18) 필자는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성:허구성’, ‘초월성:일상성’을 두 축으로 하는 설화갈래론을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 충분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같은 공간상의 대립은 전승자들이 ‘실제 발붙이고 있는 공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한편 ‘심리적 거리’의 차원에서도 문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실제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전승자들이 자신이 발붙이고 있는 공간과 동질적인 공간으로 느낄 때 그 공간은 심리상으로 보아 ‘이곳’이 되며, 반대로 실제의 거리와 상관없이 전승자들이 자신이 처해 있는 공간과는 이질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심리적으로 먼 곳으로 느낄 때 그 공간은 ‘저곳’이 되는 것이다. 설화의 의미가 구현됨에 있어서는 이러한 심리적 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설화의 작중공간에 있어서의 ‘이곳:저곳’의 위상을 논함에 있어 조동일은 ‘자기 고장’, ‘서울’, ‘일본’, ‘중국’ 등의 축을 설정한 바 있다. ‘자기 고장’이 ‘이곳’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셋은 ‘저곳’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의 관심은 주로 이들 공간을 축으로 한 인물의 움직임이 지니는 의미를 도출해내는 데 놓인 것이었는데, 그의 연구작업을 통하여 ‘머무름’과 ‘떠나다님’의 행위가 갖는 사회적 의미가 심도있게 밝혀질 수 있었다.¹⁹⁾ 그러나, 그의 관심은 주로 인물의 행적에 주어 진 것인 만큼 작품 내에서 그 공간들이 서로 관계맺고 있는 양상을 작품의 전체적 구조 및 주제와 연관시켜 해명하는 방향의 작업은 소략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구성 방식을 작품구조 및 주제와 연관시켜 해명하고자 하는 데 주된 관심을 부여하고 있는바, ‘향촌’ 및 ‘서울’이라는 공간을 분석의 주된 축으로 삼으려 한다. 우리는 이미 앞 절에서 「등제한 상사람」 「피쟁이 하인」에 있어 향촌이라는 공간과 서울이라는 공간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제 「백정과 박문수」 「정승 팔린 사람」에 있어서는 그 사정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데서 논의를 출발하기로 한다.

「백정과 박문수」형 설화의 하위유형은 ‘박문수형’과 ‘양반형’으로 대별되는데,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 좀더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하위유형인 ‘박문수형’을 대상으로 해서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²⁰⁾ 약 13편의 작

19) 조동일, 앞의 책, pp.409-421.

20) ‘양반형’의 공간구성 방식은 ‘박문수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런 만큼 이 논문에서 「백정과 박문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일단 ‘박문수형’에만 유효한 것임을 밝혀 둔다.

편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²¹⁾

- 가. 주인공은 돈많은 백정이다.
- 나. 주인공은 마을 이방이 축낸 돈을 변상해 주고 좌수 사령장을 얻는다.
- 다. 고을 양반들의 반발로 좌수 노릇을 못하게 된다.
- 라. 주인공은 아는 사람 없는 먼 고장으로 거처를 옮긴다.
- 마. 주인공은 박문수의 친척이라 자칭하면서 양반행세를 한다.
- 바. 박문수가 주인공의 집으로 찾아온다.
- 사. 박문수가 주인공의 친척 노릇을 해준다.
- 아. 주인공이 돈을 보내 박문수의 협조에 보답한다.
- 자. 박문수의 동생이 그 일을 알고는 주인공을 징치하러 찾아온다.
- 차. 주인공이 징치자를 미친놈 취급해 혼을 내서 항복받는다.
- 카. 주인공은 천대를 벗고 양반으로 살아간다.

이 설화에 있어 주인공이 살아가는 공간은 다양한 이름으로 제시된다. 그냥 ‘한 고을’ 혹은 ‘한 고을→다른 고을’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몇 개 있으며, ‘광양’, ‘서울→경주’, ‘함경도→경상도’, ‘어느 고을→서산’, ‘안동→충청도’, ‘전주→서산’, ‘진주→옥천’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기도 하다. 종합해서 보면, 하나의 향촌에서 또 다른 향촌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이 설화의 또 다른 주요 인물인 박문수 및 그의 동생은 서울에 본거를 두고 살아가는 인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서울’이라는 공간이 이 설화의 중요한 공간으로 포괄될 수 있다.

「정승 골린 사람」의 각편 21편을 종합하여 기본 서사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²⁾

- 가. 정승의 사위가 집안이 미천해 벼슬을 못하고 낙대받는다.
(가'. 정승의 조카가 벼슬을 못하고 전달로 떠돈다.)
- 나. 주인공이 백마에 먹칠을 해 흑마로 만들어 정승에게 바친다.
- 다. 정승이 말을 받고 좋아서 평양감사 등의 벼슬을 준다.
- 라. 진상한 말이 가짜임이 탄로난다.
- 마. 정승이 아들을 어사로 보내 주인공을 징치하게 한다.
- 바. 주인공이 정승의 부고가 온 것처럼 꾸며 징치자를 돌려보낸다.

21) 신동훈, 앞의 논문, pp. 17~25.

22) 같은 논문, pp. 36~44.

- 사. 정승이 다른 아들을 보내 주인공을 징치하게 한다.
- 아. 주인공이 미인제를 써서 정치자를 발가벗겨 케에 가둔다.
- 자. 정승이 다시 다른 아들을 보내 주인공을 징치하게 한다.
- 차. 주인공이 거짓 신선놀음을 꾸며 정치자를 속여넘긴다.
- 카. 주인공은 자기 벼슬을 지키고 잘 산다.

이 설화에 있어서도 ‘향촌’과 ‘서울’이라는 공간이 병립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주인공은 흔히 향촌 출신의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특히 ‘가’의 경우). 그리고 그의 부임지가 평양, 성주, 부여, 하동 등으로 나타나는데, 넓게 보아 향촌으로 포괄할 수 있는 공간이다.²³⁾ 한편 주인공의 상대자인 정승 및 그의 아들들이 뿌리박고 있는 공간은 ‘서울’이다. 이 설화는 이 두 공간 및 그 사이에 놓여져 있는 길을 배경으로 하여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가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본고에서 논의대상으로 삼고 있는 네 설화유형에 있어 어느 경우이나 ‘향촌’ 및 ‘서울’이 주된 작중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주목되는 사실은 이 설화들에 있어 ‘향촌’과 ‘서울’이 서로 대립되는 공간으로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등제한 상사람」에 있어 향촌은 주인공이 상민으로서의 불우한 삶을 사는 공간인 데 비하여 서울은 그가 양반으로 출세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백정과 박문수」의 경우에는 향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물인 백정이 서울에서 박문수 및 그의 동생이 내려옴으로 해서 위기를 맞게 된다는 점에서 두 공간이 대립되고 있다. 그리고 「피쟁이 하인」에 있어서는 ‘서울’을 대하는 양반과 하인의 태도에서 대립되는 태도가 나타나며, 서울이라는 공간이 양반과 하인의 관계가 역전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향촌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²⁴⁾ 끝으로, 「정승 끌린 사람」의 경우에는 향촌과 서울이 서로 경쟁관계에

23) 평양을 향촌에 포괄시키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설화에서 평양이 서울에 상대되는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인공이 그곳에 부임하여 선정을 펼쳐 향촌민들의 신망을 얻고 그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평양’도 ‘향촌’을 대표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24) 「피쟁이 하인」에 있어서는 다른 설화에 비해 대체로 서울과 향촌의 대립이 명료히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서 거듭 다루고 있는 주인공과 정승의 생활공간으로 나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대립적인 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대립되는 두 공간 중에서 ‘향촌’은 대체로 ‘하층민의 생활 공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층민에 해당하는 주인공이 뿌리박고 살아온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향촌’은 전승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바로 ‘이곳’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특히 ‘심리적 거리’의 측면에서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전승자들이 바로 작중배경이 되고 있는 그 마을, 혹은 그 지방에 살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은 대체로 주인공이나 비슷하게 향촌에서 살아온 이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들 대부분이 이 설화들을 전승함에 있어 주인공의 입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심리적 동질감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²⁵⁾ 이에 비하여 ‘향촌’에 대립되는 공간인 ‘서울’은 자연히 ‘저곳’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설화들에 있어 ‘서울’은 대체로 ‘양반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향촌민으로 대변되는, 그리고 주인공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전승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양반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서울’은 상당한 심리적 거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간략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향촌:서울’의 대립이 이 설화들의 주제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받을 수 있다. 그 공간대립이 바로 이 설화들에 있어서 이야기 내용상의 기본 대립인 ‘하층민:양반’이라는 신분적 갈등과 연결되고 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위상이 네 설화유형에 있어 동일한 것일 수는 없는 만큼 각 설화 별로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그 검토작업을 통해 이 설화들이 주제의 구현에 있어 나타내는 미묘한 차이에 심도있게

25) 물론 전승자에 따라 그 입장이나 태도가 상반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 모든 경우를 각편에 따라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겠으나 거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우리는 그 중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작품 의미의 해석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입장을 취하여 구체적인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단 이 경우 논의의 타당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개연적인 것이 되리라는 점은 인정된다.

다가설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논의는 「등제한 상사람」 「백정과 박문수」 「피쟁이 하인」 「정승 골린 사람」의 순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등제한 상사람」에 있어 주인공이 태어나 살아온 ‘향촌’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대목을 통하여 잘 드러난다.

“그러든 그 자식을 공부룰 가리켜야 할텐데, 대낮에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식이 배울 수도 없구 그 동료들이 다 양반인데 그 상놈에 자식하구 같이 배울라구 들지두 았을거구, 또 지가 제 자식을 공부룰 가르친다면 저는 여기서 그 양반들 등상에 배겨나지도 못할거구, 또 선생님도 위신 문제로 여기서 견디시지 못할 게 아닙니까?”

“음! 그렇지. 너 잘 아는구나. 그렇지.”

“그런데 그런 처지니까 제가 지 자식 공부시켜달라고 할 수 없으니, 밤중에 세 시간씩만 가리켜 주십시오.”²⁶⁾

이 예문에서 우리는 주인공이 천대받고 설움당하는 모습의 일면을 볼 수 있다. 그는 똑똑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양반의 시선이 두려워서 남몰래 밤중에 공부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이 주인공에 있어 향촌이란 공간은 신분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고난’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인공이 이러한 고난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는 바로 ‘길의 떠남’을 통하여 마련된다. 즉 고향 마을을 떠나 서울에 도착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명문가의 사위가 됨으로 해서 양반 관료로서의 삶에 다 다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인공의 ‘길 떠남’은 자신의 주체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머무름’을 거부하고 ‘떠남’을 선택했다는 것은 기존 질서에 대한 안주를 거부하고 새로운 세계를 추구한 행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²⁷⁾

이 설화에서의 공간이동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정리할 수 있다.

향 촌 I → 서울 → 향 촌 II²⁸⁾ → 서울
 (가나) (다) (라) (마자) (차) (카) (타) (파)

26) 『한국구비문학대계』 1-9, 용인군 원삼면 설화 19, 「정승딸과 결혼한 백정 아들」, p.512.

27) 이는 조동일이 인물전설 연구를 통해 제시한 시각과 일치하는 것이다. 조동일, 앞의 책, pp.416-17 참조.

28) ‘향촌 II’라 한 것은 신분이 탄로나 낙향한 곳이 본 고향과는 다른 곳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설화에서의 공간이동이 기본적으로 ‘향촌→서울’의 방향을 따르고 있으며, 그 과정은 2회 반복을 통해 완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설화에서 이와 같이 공간이동의 방향이 일방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이 설화의 주제가 ‘신분의 상승’이라는 일방적인 지향을 기본골격으로 한다는 사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실은 ‘향촌→서울’의 공간이동이 험난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저두 과—과계를 좀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래니까는,

“응, 네가 이번에 과거를 보면 급제야. 그러니깐 너 동점한티 들키면 안된다.” 이거야.

(…)

그래 집이 와 지 예비한티 과거 보러 간대니,

“이눔으 새끼. 니가 과거 보면 우리 결국 죽구 마는디, 니가 무슨—과거가 무신 과거니. 이눔으 새끼.”

“아니요. 가겠습니다.”²⁹⁾

결국 주인공은 고집을 피워 허락을 얻고 ‘도보로’ 서울을 향해 떠난다. 이와 같이 서울을 향한 주인공의 ‘길 떠남’은 고난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험난한 길로의 들어섬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인공의 서울행이 험난한 것이라는 점은 특히 ‘제주형’의 경우에 잘 형상화가 되어 있다.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나는 주인공을 발견한 양반 자제들이 주인공을 모래에 파묻는다든지, 혹은 어려운 일을 시켜 죽이려 하는 등 괴롭히는바, 주인공은 이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고서야 겨우 서울에 이르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설화에서 ‘향촌→서울’로의 이동이 험난한 것으로 그려진 것은 바로 신분상승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신분상승의 어려움은 주인공의 서울에의 정착이 일회적으로 완결되지 못하고 2회 반복되고 있는 데서도 표현되고 있다. 서울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29) 『한국구비문학대계』 1-4, 남양주군 미금읍 설화 43, 「양반 된 상놈」, pp. 555~556.

에서 과거에 급제한 주인공이 본래의 신분이 탄로남으로 해서 쫓겨나 낙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신분상승의 험난함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서울에서 쫓겨나는 것은 ‘향촌Ⅰ→서울’의 이동이 불완전한 것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즉 주인공 자신은 향촌을 떠나 서울에 와서 자리를 잡았지만, 부친을 비롯한 다른 가족은 아직도 향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불완전성이 주인공의 부친의 상경으로 해서 표면화하게 되고, 결국은 서울에서 양반으로 정착하려는 시도가 일단 좌절되고 만 것이라 하겠다.

주인공이 완전히 신분상승에 성공하여 서울의 양반으로 정착하게 되는 계기는 ‘향촌Ⅱ’라는 공간에서 마련된다. ‘향촌Ⅰ’이 주인공의 출신 공간으로서 그 신분이 노출되어 있는 공간인 데 비해 ‘향촌Ⅱ’는 낯선 곳으로서 주인공이 새롭게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주인공은 ‘서울→향촌Ⅱ’의 길에서 얻은 큰 재력을 이용해 ‘향촌Ⅱ’에서 막강한 실력자로 자리잡게 된다. 그런 후 정승을 초청하여 자신이 당당한 양반임을 보여줌으로써 부친의 실수로 드러난 신분을 감추는 데 성공하게 된다. 설화 문면에 있어 정승이 다시 주인공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해의 풀림’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³⁰⁾ 심층적 의미에서 볼 때는 정승이 지방 유지로 자리잡은 주인공의 실력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요컨대, 주인공은 ‘향촌Ⅱ’에서의 새로운 시도를 성공시킴으로 해서 당당하게 서울의 양반 판료로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등제한 상사람」에 있어서 ‘향촌’과 ‘서울’의 대립, 그리고 그것을 축으로 한 공간이동이 이 설화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간구성의 문제가 단순히 작품 배경으로 놓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발전 및 주제 구현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행하고 있음에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백정과 박문수」에 있어서의 작중공간은 다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이 공간이 조선조 후기의 사회라는 시대적으로 제한된 공간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박문수’가 조선 후기의 인물이라는 점은 차치하고, 이 작품의 주인공이 ‘돈많은 백정’이라는 점, 그

30) 그 자세한 내용은 신동훈, 앞의 논문, pp.11~12 참조.

리고 그가 적극적으로 신분상승을 추구한다는 점은 조선후기 賤富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만하다. 우리는 이 설화를 통하여 조선 후기 사회라는 공간이 형상화되고 있는 방식에 대하여 이해를 넓힐 수 있으리라 본다.

이 설화의 주인공인 백정은 우선 자신이 뿌리박고 살아온 공간 내에서 신분의 상승을 시도한다. 재력을 이용하여 고을 이방으로부터 좌수 사령장을 얻어내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백정의 행위는 향촌사회의 신분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라 할 수 있는바, 당연히 고을 양반들의 반발을 사게 되며 결국은 좌절되고 만다. 이러한 전개는 신분제의 관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용납되는 것이 힘에 의한 일이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³¹⁾

백정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고을로 거처를 옮김으로써, 즉 ‘길을 떠남’으로써 상황을 타개해 나간다.

“에이 내가 인제 천리 밖으루다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

그래구 멀리 이삼 떠났단 말야. 그래 워낙 벌은 돈을 있으니까 집을 커다랗게 짓구 종을 부리고 거기 가가주구선 무슨 행세를 했느냐 할 것 같으드는 그 청지 뭐인가 있으니까 가서 좌수 행셀 해구 살았어요. [조사자 : 공명첩 같은 거요?] 응, 그래 인제 그 고을에선 ‘박좌수, 박좌수’ 그래요. 그래 인제 상놈은 면했어요.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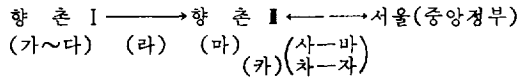
백정의 출신공간으로서의 ‘향촌 I’ 과 이렇게 새로 자리잡은 공간으로서의 ‘향촌 II’ 사이의 거리는 ‘함경도→경상도’ ‘경상도→충청도 구석’ 등과 같이 왕래가 쉽지 않은 먼 거리로 되어 있다. 곧 주인공은 이러한 공간상의 거리를 이용하여 신분상승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자신의 출신공간에서 신분상승에 좌절한 주인공이 이와 같이 공간의 이동에 의해 수월하게 신분상승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관습은 신분의 변동을 거부하려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허점이 있으며, 그 허점을 이용하던 그 관

31) 각편에 따라 백정이 자신의 출신고을 내에서 신분상승을 성취하는 것으로 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회변동의 양상에 대하여 좀더 낙관적인 의식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32) 『한국구비문학대계』, 2-7, 황성군 갑천면 설화 10, 「박문수의 낭숙이 된 백정」, pp.345~346.

습의 권역을 벗어나 뜻하는 신분상승을 이룰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제도·관습은 향촌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에 방법에 의한 신분변동을 일일이 통제함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문수의 도래로 해서 사태는 급변하게 된다. 백정은 온갖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박문수는 서울에 본가를 두고 있는 정부의 관료로서, 지방 감찰의 임무를 맡고 있는 암행어사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문수가 백정에게 찾아오는 것은 향촌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통제가 미치게 된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향촌과 서울이 대립적으로 만나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만남은 박문수에 이어 박문수 동생의 도래에 의하여 재차 반복되는바, 여기에서 이 설화의 공간구성 양상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박문수의 도래에 의해 이루어지는 향촌과 서울의 첫번째의 만남은 화해로운 결말을 맞는다. 박문수가 백정을 만나본 후 그 인물됨을 보고서는 그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박문수의 행위는 신분에 의해 인간을 규정하고 억압하는 행위가 부당한 것이며 신분상승을 추구하는 백정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임을 의미한다. 박문수는 세상의 흐름을 바로 볼 수 있었던 지식인으로서, 향촌사회에서 전개되고 있었던 사회변화를 정당한 변화, 혹은 어쩔수없는 변화로 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박문수의 동생이 도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향촌과 서울의 두번째의 만남은 첫번째의 경우보다 더욱 대립적이며 급박한 만남이다. 박문수의 동생이 백정이 양반으로 행세하게 되는 것과 같은 향촌사회의 변동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거부하고 그 당사자인 백정을 징치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보수적인 중앙양반의 입장을 대변하는 행위라 할 만하다. 그런데, 이 인물과 백정의 대결은 백정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고 만다. 백정을 징치하려고 내세운 양반의 위세는 백정의 힘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만다. 그의 위세는 서울에서의 위세였을 뿐 백정의 생

활공간인 향촌에 이르러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그의 행위는 ‘더친놈’의 행위로 몰려 백정에 의해 농락당하게 되며,³³⁾ 끝내 형세가 여의치 않음을 알고 백정 앞에 굴복하게 된다. 이러한 사건전개는 향촌사회의 신분변동이 엄연하고 정당한 현실이며, 중앙으로부터 통제되어서도 안되고 통제될 수도 없다는 의식이 이 설화의 심층적 의미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카님, 이번 참 와서 고생 참 기가 맥히게 했네. 이거 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그리구설광에 칼을 태워서 올려 보내니, 이 자식두 아뭏소리 못하고 꿀먹은 병어리 모양 끄떡 끄떡 말 위에서 그리 올라간단 말야.

집에 떡 들어오니 저의 형이 있다 하는 말이,

“너 거 오래 걸렸구나, 거 사람 잡아 오기가 그렇게 험이 드나?”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 말 마시요.”

“거 봐라 인마. 너가 웬만한 놈 같음 그 자리서 후렸지 그냥 두질 않아. 그냥 둘 놈이 아닌데 원체 사람이 나기를 잘났다. 암만 백정질을 했더라도 그 놈이 나길 잘 냈어. 그래서 내 자신도 그를 그냥 눈 감구 귀 먹은 처 하고 왔는데 네까짓 놈이 뭐 대단한 놈이 돼서 그놈을 잡아오냐.”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 말 마쇼. 세상에 내가 그런 무서운 놈은 이 세상에서 침 봤읍니다.”³⁴⁾

이 대화에 있어 박문수와 그 동생이 백정을 달리 처리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인물이 활동하고 있었던 당대 사회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 「백정과 박문수」에서도 공간구성과 주제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충분히 드러난 셈이다. 특히, 공간에 관심을 기울임으로 해서 이 설화가 반영하고 있는 사회변동의 역학에 대하여 새로운 방향에서 다가갈 수 있었다고 하겠다.

33) 한 각편에서는 농부들에게 얻어맞아 죽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한국구비문학대제』 5-5, 경음군 경우면 설화 16, 「백정의 양반 노릇」 참조.

34) 『한국구비문학대제』 2-2, 춘천시 설화 36, 「백정의 조카 노릇한 박문수」, pp. 249~250.

「피쟁이 하인」에 있어 주인공인 하인과 그의 상전은 향촌사회의 전형적인 하층민과 양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설화는 기본적으로 향촌내에서의 신분갈등 양상을 그려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설화에 있어서 나타나는 ‘서울’이라는 공간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대립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이에 대하여, 이 설화에 있어 향촌과 서울을 두 축으로 한 공간이동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동 양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향 촌————→서 울————→향 촌
 (가) (나) (다) (라) (마) (바~아) (아~카)

여기에서 앞의 향촌과 뒤의 향촌은 동일한 곳이므로, 이 설화의 공간구성은 ‘길 떠남’과 ‘되돌아옴’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설화에 있어서 갈등이 표면화하고 발전되는 과정은 이러한 공간이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 설화에서 하인과 상전의 관계는 처음부터 갈등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가’의 단락에 있어 그 갈등은 걸으로 분출되는 것이라기보다 잠재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저를 속량(贖良)을 히 주시요. 나가서 살올라우. 나 종노릇 하구 못 살겠소. 허니 속량을 히 주시요.”

하님께,

“못 히준다.”

그런단 말여.

“왜 못 히주냐?”

그랑게,

“아, 이눔아 느그 네 예미네 애비 때부터 저 네 지집을 내게다 팔어. 네 쟁인이 팔아먹어서 네 가속이 내 종년이고 네가 이눔아 내 종한테 비부(婢夫) 들었는디 속량을 해 주겠냐. 하니까 못 히준다.”

“그러겠다”구.

게 그냥 있어.³⁵⁾

35) 『한국구비문학대계』 1-1, 도봉구 수유동 설화 63, 「상전을 속인 하인—임한 유기장사—」, p.523.

이와 같이 불만이 있으면서도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주인공과 상전의 신분적 관계가 그 거주공간 내에 있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양반인 상전이 기반을 두고 세력을 펼치고 있는 공간인 만큼 마음대로 그에게 도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표면화되는 계기가 바로 서울로의 ‘길 떠남’이라고 할 수 있다. 상전이 서울로 길을 떠나는 것은 대개 과거를 보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서울은 그에게 있어 회당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하인에게 있어 서울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상전의 뒤치닥거리를 하기 위해 향하는 공간일 뿐이다. 그런데 이 서울행을 통해 하인과 상전은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된다.

그래 이놈이 인자 이걸 이걸 종놈이라고 아주 상전이 아주 딥상으로 봐서 함께, 이놈이 속으로 뭐 요분(요번) 과계걸음에 말이지 보값음을 할라고 생각하는기야.³⁶⁾

하인은 이 서울행을 ‘보값음’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두 인물간의 갈등이 표면화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길떠남’을 계기로 해서 하인이 상전에게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길떠남이 바로 상전의 ‘세력권’에서의 벗어남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단 둘이서 낯선 공간에 처하게 됨으로써 두 인물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일대일로 대면하게 되는 것이다. 길을 떠남에 있어 상전은 하인에게 서울은 ‘눈 감으면 코 베가는’ 무서운 곳이라고 주의를 시키며 위세를 부린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전의 위세는 하인의 재력에 의해 철저하게 깨어지고 만다. 일대일의 인간적 대결에 있어 하인의 우위가 명백해지는 것이다.

상전이 하인을 본가로 되돌려 보내 죽이게 하는 것은 열세가 명백해진 양반이 하인을 다시 자신의 세력권으로 보내 상황을 역전시키려 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미 한번 드러난 우열은 더욱 명백해질 뿐이다. 하인이 도리어 상전의 딸과 재산을 빼앗고 마는 것이다. 상전은 끝내 그 우열을 인정치 않고 다시 하인을 징치하려 하지만, 그 결과는 패

36) 『한국구비문학대계』 1-1, 도봉구 수유동 설화 93, 「괴쟁이 하인—유월삼—」, p. 765.

가망신으로 나타날 뿐이다.

이와 같이 이 설화는 양반과 하층민을 향촌이라는 익숙한 공간으로부터 서울이라는 낯선 공간으로 옮겨놓음으로써 그 인간적 우열을 드러내 신분제의 모순 및 양반의 허위를 공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 구조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이 설화가 현실사회의 신분갈등 문제를 현실성 있게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그 작중상황 설정의 방식이나 문제해결 방식이 회극적 과장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이러한 현실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 할 만하다.

「정승 골린 사람」에 있어서도 향촌과 서울이 병립하고 있음은 앞서 지적한 바 있는데, 이 설화에서는 특히 ‘서울’로 대변되는 집권양반 사회의 실상이 잘 그려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에년에 한 사람이 서울로 과개를 갔어. 과개를 갔더니 아 이놈이 돈을 열매를 썼는지 집안 살림을 다 털어먹어도 아 초시 한 자리를 안 주네. 이놈이 정승이 얼마나 쾌심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자 그놈한테 배슬 얻기는 틀렸어. 이 셈어갈 이놈의 자식을 어찌케 원수를 갚으고, 그때가 칠월달인디.

“대감님 저 집이름 좀 가봐야겠습니다. 시골은 지방 어떻게 생겼는가 모르게 좀 가봐야겠습니다.”

“그문 갈랑가? 갈라든 물이라도 한 사발 먹고 가얏 것 아닌가?”

저는 약주먹고, 탁탁 탁배기만 그 사람 주고 그런 놈 욕심만헌 놈여. 그리서 인자 간다고 헌계 돈을 댓 냥 주드래여. 한 입이다 할딱 할아먹어 버리고.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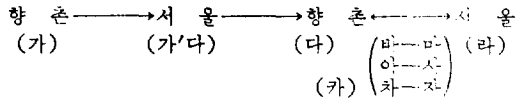
그것은 이와 같이 매관매직을 빌미로 하여 돈을 갈취하는 등 부패한 사회로 그려지고 있다. ‘가’ 단락에서 볼 수 있듯이 집안을 따져서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집권양반 사회의 현실에 대한 주인공의 입장은 다분히 적대적인 것으로 그려져 있다. 그는 향촌의 서민 출신 인물로서 이러한 모순적인 서울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인물로 나타나며(‘가’의 경우), 혹은 본래 서울 출신이지만 정승이나 그 아들들과는 달리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건달로 떠도는 인물로 그려진다(‘가’의 경우). 이

37) 『한국구비문학대계』 5-6, 정음군 태인면 설화 27, 「암체정승 골려주고 평양감사 된 김서방의 책략」, pp.184~185.

러한 주인공이 계책을 써서 지방관으로 발령받으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주인공은 선정을 베풀어 향촌민들의 신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주인공이 향촌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터이다.

주인공이 선정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승은, 사적인 이유로 해서 벼슬을 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적인 분노로 해서 주인공을 징치하려 한다. 이는 지방사회의 입장을 무시한 중앙집권층의 횡포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징치자와 주인공의 만남은 향촌과 서울의 대립적 만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과 향촌 사이의 만남과 인물의 다툼은 위에서 볼 수 있듯 3회 반복되는데, 다툼이 하나하나 진척되면서 그 우열이 갈수록 명백해진다. 즉 서울에서 주인공을 징치하려 내려온 정승의 여러 아들은 주인공의 계략에 넘어가 터무니없이 농락당하고 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양반사회가 지닌 여러 모순상이 드러나는데, 公보다 私를 앞세우는 모습, 욕정 앞에 무력한 모습, 허상에 도취해 방황하는 모습 등이 회극적으로 폭로된다.³⁸⁾ 자신이 신선이 된 걸로 착각하고 있는 정승 아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우스꽝스럽게 그지없다.

아 그러고 저그집이를 가던게 아 문간이 그대로 가만히 있고 그대로 다 있던 말이. 근게 ‘우리 선조께서 원청 튼튼하게 잘 히와서 이렇게 천년이 넘어가도 그대로 가만히 있구나.’ 말여. 그리고는 정승 말이 가서 저그 아버지 방문을 이렇게 배그시 연계, 저그 아버지가,

“너그 매부 잡어오냐?”

헌게 허허 웃더니,

“용이 용을 낳고 봉이 봉을 낳는다더니 니가 그전에 우리 아버지 영낙 없다.” [일동 : 웃음]³⁹⁾

38) 신동훈, 앞의 논문, pp.80~81 참조.

39) 『한국구비문학대계』, 5-7, 정유근 응동면 설화 9, 『지혜로운 평양감사』, p. 311.

이 설화에 있어 정승이 사람을 보내 주인공을 징치하려 한다는 것은 중앙정권층에서 지방, 혹은 향촌을 통제하려는 행위로 이해된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추한 모습만을 드러내고 마는데, 건강한 향촌사회가 부패한 중앙정권층에 의해 통제당하고 농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의식이 이 설화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우리는 「정승 골린 사람」에 있어서도 공간대립 및 공간이동의 위상이 사건의 발전 및 주제 구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피쟁이 하인」과 마찬가지로 회극적이고 과장적인 표현 이면에 현실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이 설화에서 다시 증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네 유형의 신분갈등 설화에 있어서의 공간구성 방식 및 그것과 주제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각 설화 유형에서 공간이 대립되는 양상, 혹은 공간이동의 양상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서울’과 ‘향촌’이라는 공간이 중요한 대립축이 되고 있으면서 주제의 구현과도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음은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본다. 한편 그 논의과정을 통해, 허구적으로 대상화된 작중상황이 실제 현실상황과 의미연관을 맺음에 있어 작중공간이 긴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 점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신분갈등을 주제로 하는 네 가지 설화유형을 대상으로 하여 그 공간구성의 양상 및 주제와의 관련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설화연구에 있어 작중공간에 관한 논의가 주로 ‘초월계’와 같은 특수한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어 온 데 대하여, 일상의 사회생활 공간이 설화 속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화에 초월계와 같은 별세계가 설정된 경우 그것은 작중상황에 대상성을 부여함에 있어 긴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그러한 별세계가 배제되고 일상적 생활공간이 작중공간으로 자리한 경우 설화의 작중상황은 현실상황을 향하여 열려지게 된다. 초월계의 설정이 ‘현실 너머’에 대

한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생활공간의 설정은 '현실' 자체에 대한 관심을 기본 출발점으로 삼는다 할 수 있다. 한편, 초월계의 상대항으로 설정되는 '현실계'가 '인간세계'로서의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는 데 비해, 현실계가 일원적으로 문제시되는 경우 그것은 현실의 '특정한' 문제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공간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우리는 일상 생활공간이 작중공간으로 자리한 설화들에 있어 다양하게 공간 대립의 축을 탐색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은 크게 보아 '이곳 : 저곳'의 대립으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 논의대상으로 삼은 네 설화유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향촌 : 서울'의 대립이 바로 '이곳 : 저곳'의 대립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향촌 : 서울'의 대립은 네 설화유형에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되면서 의미의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그것은 '양반 : 하층민'이라는 신분상의 대립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가운데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주제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공간대립을 통해 구현되는 사회적 갈등의 역학은 인물대립 분석에만 의존할 경우 제대로 감지하기 힘든 미묘한 것이다. 한편, 이 설화들에 있어 '향촌'과 '서울'을 두 축으로 하는 공간이동은 갈등이 표면화되고 발전, 종결됨에 있어 중요한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곧 이 설화들에서의 의미 구현은 상당부분 공간이동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놓고 볼 때 설화에 있어—특히, 이 경우 사회적 갈등을 주제로 하는 설화에 있어—공간구성이라는 요소가 미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논의를 전개해 나감에 있어, 실제로는 다양한 편차를 지니고 있는 여러 자료의 성격을 간략하게 일반화한 경우가 많았으나, 그 과정에 다소간 무리가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그리고 자료 표면에 나타나 있는 것 이상을 문제삼음으로 해서 때로 작중공간의 의미가 확대 해석된 경우도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나 본 논문의 논의는 마무리가 아니라 출발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본 논문의 문제점이 비판 보완되고, 궁극적으로 설화에 있어서의 작중공간의 위상에 관한 인식이 확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